

군산 산북동 공룡·익룡 발자국 공개

전북 최초 화석 산출 화석산지... 조사·보호각 건립·보존처리 등 완료 31일부터 시민에 공개 예정

군산시는 지난 2014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한 조사, 보호각 건립, 보존처리 등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화석 산지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전라북도 최초로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산출된 화석산지로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백악기시대 공룡의 행동특성과 고생태 환경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다.

문화재 발견 이후 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당해 문화재조사 및 주변조사를 통해 매몰되어 있던 발자국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과학적 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존처리 및 보호각 건립을 추진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문화재 조사, 토지매입, 보존처리, 보호각 건립, 지장물 철거 등이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시는 안내소 및 편의 시설 설치되는 1월 말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발견 이후 군산시민들과 마을주민, 문화재청과 관계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한 조사, 보호각 건립, 보존처리 등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화석산지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공개와 함께 지질해설사가 배치돼 화석산지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지

질명소 10개소 및 관광자원 등을 홍보·교육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무주군이 전국 10대 지역관광 매력도시로 새롭게 선정됐다.(사진은 덕유산 겨울 모습)

무주군, '지역관광 매력도시' 급부상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전국 10대 매력도시로 선정

무주군이 전국 10대 지역관광 매력도시로 새롭게 선정되면서 전국에 관광 도시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은 관광수용력지수 1등급, 관광정책역량지수 1등급을 받아 전국 10대 관광매력 도시로 급부상 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자원과 기반시설 수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한다.

특히 무주군은 관광객 만족도가 2019년 81.18→109.17%(2021년), 안전이 97.79→106.68%, 숙박 113.39→133.40% 증가하는 등

8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한 시각화 및 설명 자료는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 정보시스템(www.tds.go.kr)'에서 제공한다.

황인홍 군수는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2021 지역관광 발전지수에서 1등급 선정'을 통해 무주가 대표적인 관광 매력도시로 명실공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며 "무주는 청정 구천동 33경 계곡과 덕유산, 2022년 관광웰니스로 선정된 태권도원 등을 통해 코로나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고 쉬는 휴식처로 한번 오면 꼭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최대 4만원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남원시공공도서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남원시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권 최대 4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

월~9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0월 본격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원시민 1,228명 참여로 3,000만 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이 소진되었으며 2,216권의 도서가 공공도서관으로 유입되어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균형있고 체계적인 장서 확충 및 대형서점 및 온라인 도서 구입으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2022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의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월 1인 2권, 권당 2만원 이하로 제한된 도서금액을 완화하여 월 4만원 내에서 권당 도서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2권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도서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시장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지역서점-공공도서관과 상호 협력하여 '책 읽기 좋은 도시 남원' 만들기 및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내달 6일까지 '지프지기' 430명 모집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월 6일까지 제24회 영화제의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모집한다.

9일 조직위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한국영화팀 △해외영화팀 △홍보미디어팀 △콘텐츠사업실 △관객서비스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기술팀 △전주프로젝트팀 △세네투어팀

△기획팀 △운영팀 등 12개 부문에 속한 23개 파트로, 총 430여 명을 선발한다.

지프지기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포함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자원봉사포털 1365를 통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프지기에게는 유니폼, 배지, 기념앨범 등 다수의 기념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프지기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프지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중장년층 자원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지프지기' 모집을 별도 진행한다. 만 40세 이상의 성인 중 지프지기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월 6일까지 이메일(volunteer@jiffifest.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은경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관 대관 추가 모집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국 공예 작가를 대상으로 다온관(전시 1관), 라온관(전시 2관)에 대한 대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온관(전시 1관)'과 '라온관(전시 2관)'의 크기는 71.28㎡(21.5평)로 동일하며, 전주한옥마을 메인 거리인 태조로 인도면에 위치했다.

대관료는 부가세 포함 1일 6만6000원으로, 일주일 대관비는 39만6000원이다. 전시를 위한 작품의 반입 반출은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해당일은 대관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관 가능일은 2월 21일부터 12월 24일(33주)로 최소 1주(6일) 이상, 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여러 명의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공예 분야 종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선정된 대관 작가에게 홍보 영상 및 옥외 홍보물(현수막 또는 배너)을 제작·지원해 성공적인 전시를 돕는다.

전시관 상시 접수는 이달 9일부터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관 담당자에게 이메일(art@ktcc.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공예작가의 오랜 숙연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